



타이거 우즈(미국)가 14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채스카의 헤이즐턴 내셔널골프장에서 열린 PGA 챔피언십 첫 날 15번 홀에서 수많은 갤러리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벵커샷을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골프채 4개로 골프 시작했다”

US여자아마골프 우승한 송민영

골프채 4개만을 달랑 든 채 골프에 뛰어들었던 송민영(20·사진)이 미국여자아마추어골프의 1인자가 돼 13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지난 6월 미국골프협회(USGA)가 주최한 퍼블릭링크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했던 송민영은 두달여만인 지난 8월 10일 US여자아마추어선수권대회도 제패하며 미국 골프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당혹스러웠던 한국 첫 대회=“그 때는 정말 창피스럽기도하고 당혹스럽기도 했어요. 저는 달랑 캐디백에 골프채 4개만을 넣고 출전했는데 다른 선수들의 장비는 마치 프로 선수 같았어요” 송민영은 2000년 한국 대회에 처음 출전했을 때 기억을 잊지 못했다.

2000년 주위의 권유로 초동부 대회에 출전한 송민영은 첫 홀 티박스에서부터

기가 질리고 말았다.

골프채 4개만을 달랑 들고 대회에 나온 송민영은 폴세트로 장비를 완전히 갖추고 프로 선수처럼 경기하는 동안 플레이 어들에게 주목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날 송민영의 스코어는 120타였다.

▲프로 전향보다는 더 많은 경험을 = 오는 9월 2학년이 되는 송민영은 아직 프로로 전향할 생각이 없다. 송민영은 “언제가는 프로 선수가 되겠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 실력이 부족하지만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대학의 골프프로그램도 마음에 든다. “공부와 골프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어요. 학과 수업을 특목 요일에 짜놓으면 나머지 시간에 충분히 연습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3-4시간 정



도 골프 연습을 하는 송민영은 당대 최고의 실력을 보여준 잭 니클라우스나 타이거 우즈(이상 미국)를 좋아하지만 롤 모델은 로레나 오초야(멕시코)이다.

송민영은 “오초야는 필드 안에서나 밖에서나 따뜻한 마음씨를 갖고 있는 선수다. 다른 선수들이 나를 롤모델로 삼을 수 있도록 모범적인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골프황제 기세 거침없다

우즈 1타차 단독 선두...3주 연속 우승 산뜻한 출발

PGA챔피언십 첫날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와 파드리그 해링턴(아일랜드)이 나흘만의 재대결에서 옹호상박의 대결을 펼쳤다.

우즈는 14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채스카의 헤이즐턴 내셔널 골프장(파72·7천674야드)에서 열린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PGA챔피언십 첫날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5개만 잡아내며 5언더파 67타로 단독 1위를 달렸다.

부익오픈에 이어 WGC 브리지스톤 인비테이션까지 2주 연속 우승한 기세를 몰아 우즈는 후반 9홀에서 3개의 버디를 기록하는 등 5개의 버디를 잡아내며 1위에 올랐다. 우즈는 “수년간 경기력이 나아졌다”며 “이제는 많은 실수를 하지 않고 좀 더 일관되게 경기를 잘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조에서 경기를 펼친 지난해 이 대회 우승자 해링턴은 우즈에 한 타 차 뒤진 단독 2위(4언더파 68타)로 우즈를 바짝 추격했다. 한국 또는 한국계 선수 중에서는 위창수

(37·테일러메이드)가 선두에 5타 뒤진 이븐파 72타로 공동 27위에 오르면서 선두권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다. 또 2006년 이 대회에서 공동 7위로 톱10에 들었던 최경주(39·나이키골프)는 1오버파 73타로 공동 44위를 기록했다.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과 나상욱(26·타이틀리스트),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 스튜어트 싱크(미국·올 메이저대회 브리티시 오픈 우승자) 등도 최경주와 함께 공동 44위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이용대-이효정조 혼합복식 8강 진출 세계배드민턴선수권

2003년 김동문-라경민 콤비 이후 처음으로 세계선수권대회 금메달을 노리는 이용대(21)-이효정(28·이상 삼성전기)이 2009 세계개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8강에 진출했다.

이용대-이효정은 13일 대회 4일째 혼합복식 16강에서 쉬전-자오원레이(중국)를 2-0(21-11 21-17)으로 가볍게 눌렀다.

이용대는 정재성(27·국군체육부대)과 호흡을 맞춘 남자복식 16강에서도 허한빈-선예(중국)를 세트스코어 2-0(21-11 21-15)로 이기고 무난하게 8강에 올랐다.

조건우(21·삼성전기)-유영성(23·수원시청)도 남자복식 16강에서 후츠허시엔-차이치아신(대만)에 2-1(16-21 21-8 21-19)로 역전승을 거뒀다.

한상훈(25·삼성전기)-신백철(20·한국체대)은 로고즈 마이칼-마테우시악 로베르트(폴란드)를 2-0(21-17 21-12)으로 제쳤다.

또 이효정은 이경원(29·삼성전기)와 짝을 이뤄 출전한 여자복식 16강전에서 싱가포르를 이겼고, 김민정(23·전북은행)-하정은(22·대교농협)은 덴마크를 꺾고 8강에 나섰다. /연합뉴스

김하늘 부활 신호탄

하이원골프 1R 공동선두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스타 플레이어 김하늘(21·코오롱)이 부진 탈출의 신호탄을 쏘았다.

김하늘은 14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 골프장(파72·6천496야드)에서 열린 하이원리조트컵 SBS채리티여자오픈 1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 6개를 잡아내며 6언더파 66타로 이보미(21·하이마트), 안선주(22·하이마트)와 함께 공동 선두에 나섰다. 지난 해 3승을 올리며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던 김하늘은 올 시즌 9개 대회에 출전, 우승은 커녕 톱 5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는 부진을 거듭했다.

성적도 좋지 않았지만 스윙도 크게 흔들려 마음 고생을 했던 김하늘은 상반기 대회가 끝난 뒤 스윙 교정에 들어갔고 하반기 첫 대회부터 제 실력을 발휘했다.

역시 지난 해 2승을 수확한 뒤 올리는 우승을 신고하지 못했던 홍란(23.민심웨어)도 5언더파 67타를 치며 공동 4위에 자리했다.

이번 대회 최고의 흥행카드인 US여자오픈 챔피언 지은희(23·힐라코리아), 국내 1인자 자리를 다투고 있는 서희경(23·하이트), 유소연(19·하이마트)의 대결에서는 국내파가 근소한 차로 앞서 나갔다. /연합뉴스

골프·럭비 100여년만에 올림픽 무대 복귀

10월 IOC 총회서 종목 채택

골프와 럭비가 100여년만에 올림픽 무대에 복귀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13일 독일 베를린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7개 후보 종목을 놓고 2016년 하계올림픽 추천 종목을 심의한 결과 골프와 7인제 럭비를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종목 추천은 15명의 집행위원들이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 최다득표 종목을 하나씩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골프와 럭비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다.

골프와 럭비는 오는 10월 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최종 찬반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지만 집행위를 통과한 안건이 IOC 총회에서 부결된 전례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이 없는 한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1904년 세인트루이스올림픽을 끝으로 사라졌던 골프가 총회마저 통과하면 무려 112년만에 복귀하게 된다. 또 1924년 파리올림픽 이후 자진 탈퇴했던 럭비는 92년만에 재등장하게 됐다. 그러나 2012년 런던올림픽 종목에서 제외됐던 야구와 소프트볼은 다시 고배를 마셨다. /연합뉴스

생활 게시판

무음

▲김소레씨 별세 대업·철안·정희·은희·영희·복희·은영·정숙씨 모친상=발인 15일(토) 학동 금호장례식장 201호. 062-227-4000.

▲배태순씨 별세 회영·회원·귀례·영숙씨 부친상=발인 15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4444.

8905.

▲백형식씨 별세 수원·중기·수철·현진·순희씨 부친상=발인 15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박광진씨 별세 최영래·영욱·정자·송월·유진씨 모친상=발인 15일(토)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분향소. 062-231-8901.

▲박순용씨 별세 제현·선진·맹숙·도현·명희씨 부친상=발인 15일(토) 주월동 나라장례식장 3층 특실. 062-670-4444.

대한민국 대표 방송

CBS

노컷뉴스는 CBS와 함께 만드는 무료 종합일간신문입니다

뉴스전화 : 02-3779-8000

RADIO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가톨릭방송을 전국으로 전하는 날이

CBS

060-600-1031